

은행보다 더 무서운 보험사 ‘꺾기’

자동차부품값 5~7% 일률공제 지급

마진 33% 강탈...업체들 경영난 가중

은행 대출에만 ‘꺾기’가 있는 게 아니다. 자동차부품 거래에도 부당 영업행위인 ‘꺾기’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마진이 크게 줄어든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6일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차량 수리에 들어간 부품값을 지급하면서 청구액의 5~7%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긴다. 정비업소는 부품 대리점에서 필요한 부품을 가져다 쓰고, 대리점은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값을 보험사에 청구한다. 보험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부품값을 대리점에 지급한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부품값을 지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보험사들은 부품 청구금액 중 5~7%를 떼 났다. 실제 차량 접촉 사고로 범퍼가 깨졌다면 정비업소는 대리점에서 범퍼, 라이트, 방향등 전구 등의 부품을 가져다 수리한다. 총 30만원어치 부품이 소요됐다면 보험사는 1만5000원~2만1000원을 떼

고 나머지 28만5000원~27만9000원만 지급하는 것이다.

조합 측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꺾기 관행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꺾기 관

행이 알려지면서 택시공제 등 공제조합으로 꺾기가 확산됐다. 문제는 부품 판매 마진이 15% 정도인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을 보험사들이 가져가면서 부품판매업체들이 운영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부품은 정가 판매여서 부풀릴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마진이 15%가량인데 보험사들이 3분의 1 이상을 가져가고 세금·인건비·운송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

무실 경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문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주에 120여개의 부품판매업체가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100여개 업체로 줄었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조합 측은 이같은 불합리한 꺾기 관행을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달했고, 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광주·전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가 6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손경식 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소조선소 수출보증 풀어달라” “한전 지중화 표준설계 만들어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광주·전남 중소기업 간담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살아남을 곳만 남았다. 하지만 금융권과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회피하고 있다.”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매번 설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용이 이중삼중 든다. 표준설계를 만들어 비용을 절감했으면 한다.”

21일 오전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광주·전남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

표들은 손경식 국경위원장(대한상회의 회장)에게 지역 기업의 애로와 불만을 쏟아냈다.

지방에서는 처음 개최된 이날 국경위 간담회에는 손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현오석 KDI원장, 박유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장춘상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양보승 광주·전남지회회장, 이정연 한일종합기계 대표, 정선태 프로텍 LED 대표 등 국경위원과 중소기업들이 참석했다.

목표 세광조선의 유재익 대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췄지

만 금융권이 RG 발급을 외면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도 수출 보증을 거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 고용이 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게 된다”며 금융권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을 호소했다.

최석현 최씨공방 대표는 “장인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공예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종철 경인엔지니어링 대표는 “대불산단 내 중소기업체 20개사가 서남권공력발전협회를 구성해 해상 풍력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풍력산업 마스터플랜을 알면 부품 개발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며 “정부의 풍력 정책이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인 양보승 경서산업 대표는 “아스콘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손해보면서 공급하고 있다”며 “아스콘 단가를 싼 거래가가 아닌 원가 계산 방식으로 바뀌어 적정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국경위원장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며 “기업이 겪는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적극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임금 대기업의 63%

417만원 대 263만원

10년간 양극화 심화

지난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63%에 그치는 등 지난 10년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총액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중소기업(5~299인) 상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63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417만5000원으로,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상대임금 수준은 63.2로 집계됐다.

대·중기업의 상대 임금수준

격차는 2000년대 들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중소기업 상용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153만원, 대기업은 214만7000원으로 상대임금 수준은 71.3이었다.

2001년 70.9였던 상대임금 수준은 2002년 67.5로 70 아래로 떨어진 뒤 2003년 65.8, 2004년 64, 2005년 64.3, 2006년 65.4, 2007년 64.8, 2008년 63.6, 2009년 65, 2010년 62.9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대기업의 70% 수준이던 중소기업의 임금이 최근에는 60% 초반대로 떨어진 셈이다.

이는 최근 우리 경제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낙수효과란 대기업 수출이 호황을 보이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하청 발주도 늘어나는 등 그 효과가 국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는 것을 말한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책임연구원은 “대·중기업 임금격차 확대는 대기업 집단의 실적은 수출 호조 등으로 계속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내수업체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산단 출퇴근 소형차 구입 700만원 용자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근로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는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

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한다는 목표 아래 ▲둔든한 생활기반 마련 ▲

은퇴, 실업에 대한 보호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등 5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액 긴급 생활자금 용자가 신설돼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는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사유에 관계없이 100만원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출퇴근을 위한 소형 자동차 구입 시 700만원 한도 내에서 용자 지원이 제공되고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 및 주차 지원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오토 GP’ 공식타이어 선정

금호타이어는 6일 세계 정상급 포뮬러 대회인 ‘2012 오토 GP (Auto GP)’의 공식 타이어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1999년 시작된 이탈리아 포뮬러 3000 시리즈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550마력의 3400cc 8기통 엔진을 사용한다. 올해 개막전은 오는 9일부터 3일간 F1 서킷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아 몬짜에서 열린다. 금호타이어는 F3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 공식타이어로 참여, F3 1위 브랜드로서 모터스포츠 상위클래스로 진입하게 됐다. 주경태 금호타이어 마케팅담당 상무는 “F1 무대로 가기 바로 전단계인 Auto GP 공식타이어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임금 2.9% 이내로”

경총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올해 임금을 2.9% 이내에서 인상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회원사 400여 곳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도 경총이 제시한 적정 임금인 상률은 3.5%였다.

임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은 2.9%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을 조정하고 남은 재원을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또 성과와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전환하라고 권장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됐으므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냈다.

경총은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낡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을 없애려고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2,000.36 (-15.70)
코스닥지수	533.62 (-6.12)
금리 (국고채 3년)	3.50% (-3.50)
원·달러 환율	1,122.90원 (+4.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삼일로점) 삼일로 입구: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덕미널 입):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서점) 영: 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인화점) 영: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영: 032617-5110 수원점(남문 입): 031246-5110 의정부점(모천로터리) 용인점(역삼로2001) 아울렛 입: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영: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영: 031339-1090 오산점(국인은행 2층) 영: 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입) 영: 032029-4400 남양주점(평내로) 영: 0708829-98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영: 051819-8800 서면점(서면로터리) 영: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백화점 입) 영: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영: 055291-0160 진주시점(중앙로터리) 영: 055145-9870 대구 동명점(동명네거리) 영: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영: 053426-1511 남양주점(아카데미점 입) 영: 053425-7575 경북 포항점(대거리) 영: 054034-5110 안동점(구.인화점) 영: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심 입) 영: 022225-5110 광주점(백담로) 영: 062654-4477 전남 순천점(순천역) 영: 061752-0245 전북 전주점(전주역) 영: 063225-5720 군산점(구.서해점) 영: 063339-6200 남원점(남원역) 영: 063332-7628 대전 대전점(도심 입) 영: 042234-5110 대전점(충훈로터리) 영: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영: 042255-63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영: 041653-2888 광주점(광주역사거리) 영: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가도 구.수리산고속 앞) 영: 043222-1177-8 충주점(삼천로터리) 영: 043652-1414 강원 강릉점(죽전로터리) 영: 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입) 영: 033253-5110 제주 제주점(경명로터리) 영: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청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